

아동의 학교미술활동에 대한 시각적 기억 분석*

김 미 남**

〈 목 차 〉

I. 서론	IV. 아동의 미술수업에 대한 내면화된 기억 이미지
II. 이론적 배경	1. 미술교수 활동이 없는 미술수업
1. 현 미술교육의 문제점	2. 미술활동은 개별활동
2. 아동 미술표현의 사회화: 미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내면화 과정	3. 미술은 그림그리기
3. 아동화 분석	4. 미술은 교실에서 하는 활동
III. 연구 방법	5. 미술시간은 노는 시간, 조는 시간
1. 연구 참여자 소개	V. 결론
2. 자료의 종류와 수집 과정	※ 참고문헌
3. 자료 분석 방법과 과정	※ ABSTRACT

주제어(key words): 사회활동으로서의 아동미술활동(child art practice as a social practice), 사회문화적 발달이론(Socio-cultural theory of development), 구조기능주의(structural-functionalism), 그림분석(Visual Analysis), 동적학교생활화검사(KSD: Kinetic School Drawing)

I. 서론

본 연구자가 처음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았을 때, 교육과정은 6차에서 7차로 개정되어 새로운 운영이 필요한 시기였다. 그 당시 한 회의시간에 선배교사들이 하는 말은 신입교사인 연구자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다. “교육과정 바꾸라고 해! 난 가르치던 대로 가르칠 테니!” 나는 내가 목격한 이런 선배교사들의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태도들

* 이 논문은 김미남(2013). 아동의 학교미술활동에 대한 시각적 기억 분석. 한국조형교육학회 2013년도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를 수정, 보완한 연구임.

** 본 학회 회원,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과 조교수

이 단지 내가 근무했던 한 학교에서 일어났던 그저 작은 하나의 소동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아무리 교육과정이 백번 천 번 바뀌어도 학교 현장은 늘 0차”(이부영, 2008, p. 1)라는 말이 교육현장에는 공공연한가 보니 말이다. 특히 초등미술교육의 모습은 늘 0차이다 못해 무(無이)차라는 교육경력 30년의 그리고 미술교육을 위해 여러 실천들을 부단히 해 오신 한 초등교사의 말은 그냥 흘러들을 수가 없다.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미술과 교육과정의 개정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술교육 현장은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더 나은 미술교육을 표방한 여러 개혁의 노력들과 변화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술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미술을 배우면 배우수록 더 빨리 자신이 미술에 소질 없음을 깨닫고 있으며 심지어 너무나 어린 나이에 미술을 포기해 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이런 현장의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현대 철학의 중심 담론을 세웠다고 평가받고 있는 철학자 들뢰즈에 의하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습관화된 질서들이 존재하고 있어 변화 혹은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존재하는 질서와 형식이 부여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Deleuze & Guattari, 1980). 이 습관화된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기관 없는 신체(body without organs)’¹⁾ 개념을 소개하는 데, 그 개념은 상상조차도 힘든 것이다. 들뢰즈는 ‘세계의 혼돈스러움을 즐겁게 사유한 사상가’라고 불렸던 것처럼 살아생전 일관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더 많은 차이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철학 이론적 토대와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 이런 들뢰즈가 말하는 ‘기관 없는 신체’의 의미는 실제 기관이 제거된 ‘죽은’ 신체가 아니라 단지 중심이 되는 ‘몸(body)’를 기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속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organs)이 몸과 맺고 있는, 절대 해체될 수 없을 것 같은 ‘유기적 관계’를 해체한다는 의미이다. 습관화된 유기적 관계는 다른 방식의 기관의 기능들을 허용하지 않으며, 계속 행해오던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든다.

1) 들뢰즈는 파타리와 함께 쓴 ‘천 개의 고원(1980)’에서 다양체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들은 일관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동일성을 추구하려는 속성 때문에 ‘차이’들은 ‘비정상’ ‘기형’ ‘불완전’한 의미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동일성을 추구하려는 법칙 속에 포함될 것을 강요받게 됨을 설명한다. 그들은 현실에서 더 많은 차이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즉 다양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다양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논의한다. 들뢰즈와 파타리가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한 ‘기관 없는 신체’는 중요한 개념으로, 실제 기관이 없는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 몸(body)을 기능하게 하기 위한 중심 목적을 위해 종속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organs)이 몸과 맺고 있는 절대적으로 보이는 ‘유기적 관계’를 해체한다는 의미이다(김미남, 2013b). 들뢰즈와 파타리는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습관화된 고정된 관계들을 흔들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기관 없는 신체’라는 개념을 통해 주장한다.

이는 곧 변화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들뢰즈의 철학적 논의를 현 미술교육 상황에 적용해본다면, 우리의 미술교육 현장에도 미술교육의 구성요소들이 특정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어떤 ‘습관화된 질서’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진은정, 2013). 이 습관화된 질서들은 너무나 당연해 보여서 변화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는 너무나 공고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도하려고 하는 변화를 가로막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미술교육 현장에서 이전과 다른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과감하게 ‘미술교육의 현실’과의 마주서야 한다. 즉, 현재 미술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습관화된 법칙들이 무엇인 지 찾아내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그 해체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미술교육 현장’에 존재하는 당연하게 여겨오던 습관화된 미술교육의 모습들이 ‘외면하고 싶은’ 우리의 슬픈 자화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들뢰즈가 ‘기관 없는 신체(body without organs)’를 생각할 때, ‘죽음’이나 ‘비정상’ 혹은 ‘기형’을 떠올리지 않고, 그것을 ‘새로운 창조’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미술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 시도가 다소 괴롭고 충격적이더라도 우리는 용기 있게 마주서야 할 것이라고 본다.

본 논문은 현재 미술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 내 존재하고 있는 어떤 습관화된 질서들이 많은 아동들로 하여금 미술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게 하기보다 ‘포기’해야 할 교과목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인 지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아동들이 ‘미술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지, 즉 아동들의 ‘미술시간’에 대한 시각적 기억의 분석을 통해 그 지배적 실체와 마주하고자 한다. 여기서 아동들의 시각적 기억이라는 말은 초등학교 입학 후 다양한 미술수업 경험을 가졌을 아동들이 어떤 미술수업을 그리고 미술수업의 어떤 장면을 대표적인 인상으로 떠올리게 되는 가 즉, 어떤 영상이 아동의 기억 속에 ‘미술수업’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아동이 학교에서 경험했던 미술수업에 대해 어떤 수업 장면을 시각적 기억으로 떠올리는 지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은 아동이 어떤 미술수업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지,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경험한 미술수업이 그들에게 무엇을 무의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지, 또한 아동들에게 미술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만들고 있는 지에 관해 성인 미술교육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시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미술시간’과 관련한 학교 동적생활화 검사를 실시하였다. 학교 동적 생활화 검사(KSD: Kinetic School Drawing)는 미술치료에서 아동의 학교 환경 내의 상호관계 및 학업과 관련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도구

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원래 실시 방법과 분석 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 논문은 우선 현재 학교 미술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 지 점검하고, 다음 단계로 아동들의 미술표현에 대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대나 가치들이 무엇이며, 아동들이 어떻게 이것을 내면화하게 되는 지에 대해 탐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아동의 시각적 기억을 표현한 그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그림의 분석과 해석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 검토 후 본격적으로 본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연구의 진행 과정과 자료수집 과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들이 시각적으로 기억해내고 있는 ‘미술수업’의 모습이 미술교육을 담당한 교사와 미술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어떤 실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지, 그 의미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현 미술교육의 문제점

초등학교 현장에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온 이부영²⁾교사는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야 하는 게 훌륭한 교사인 줄 알았던 자신의 교직경험을 회고하면서, 자신은 그 당시 아이들에게 붓글씨를 가르칠 때도 교과서에 나오는 글씨와 비슷하게 쓰게 하려고 아이들을 방과 후까지 남겨 가르치고 또 가르치던 열정을 지닌 교사였다고 기술한다(이부영, 2008). 이부영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다가 문득 자신이 열심히 가르쳐서 얻은 번듯한 결과물이 중요한 교육목적이 되어 버렸음을 깨닫고, 오히려 아이들이 눈빛과 몸짓으로 무엇을 소통하려 하는 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음을 늦게나마 깨달았다고 회고한다. 이부영교사는 아이들에게 수십 년 동안 미술을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결과물을 중요하게 여길 때는 아이들이 못한다는 것을 모두 아이들의 불성실이나 재능없음 탓으로 돌리고 어떻게 해서든 잘 하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아이들과의 만남과 소통이

²⁾ 이부영교사는 현재 서울강명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초등 미술교육 사이트인 ‘이부영의 초등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올바른 미술교육을 고민하는 실천가이며 연구자이기도 하다.

더 중요해지면서부터는 아이들이 못한다고 할 때는 못한다고 하는 그럴만한 까닭을 여러 방면으로 찾아 나서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내가 훌륭한 교사 노릇한다고 열심히 가르친 내용들이 정작 아이들에게 맞지 않고, 더러는 아이들이 해 낼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것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 (이부영, 2008, p. 1)

그는 또 어릴 때는 편하게 그림을 그리던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서 미술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미술에 소질이 없다고 스스로 규정하면서 그림그리기를 포기하는 이유, 즉 배우면 배울수록 미술에 대한 흥미를 잃는 이유를 어른들이 미술을 아이들의 삶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답’같은 ‘변듯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을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현 미술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이부영, 1998).

김미남(2007)의 연구는 이부영교사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현재 미술교육의 문제를 탐구하였다. 김미남은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6학년 미술전담교사의 한 학기 수업을 관찰하면서 미술과 미술교육에 대한 교사의 생각이 어떻게 한 학기 수업활동 결정에 반영되며, 교사가 결정하고 계획한 수업활동들에 참여하면서 아동들은 무엇을 학습하게 되는 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미술전담교사가 매 주 다양한 미술활동을 계획하고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용된 재료나 표현 방법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즉, 대부분의 미술수업에서 미술재료는 주로 수채물감이 사용되고 있었고, 표현 방법으로 아동들은 아이디어를 연필 스케치 후 물감으로 채색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이런 수채물감 사용을 기본으로 하는 미술활동을 반복적으로 미술수업을 통해 경험한 아동들은 ‘미술을 잘 하는 것은 물감 특히 수채물감을 기교 있게 잘 사용하여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때문에 많은 아동들이 미술을 ‘풍경화’나 ‘정물화’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김미남은 연구결과를 통해 연구에 참여한 미술교사가 ‘수채화를 사용한 회화 활동’을 6학년 아동들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런 이해는 교사가 미술수업에 어떤 활동을 선택할 것인 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김미남은 미술교사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반영된 미술수업을 계획하게 되며, 이렇게 계획된 미술수업에 참여하면서, 아동들은 교사의 미술에 대한 가치관을 내면화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내면화된 미술에 대한 편협한 이해는 아동들이 수채화 그림을 그리지 못해서 자신은 미술에 재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만들 수 있음을 비판하였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많은 아동들이 자신들은 ‘수채화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미술을 못한다’ 혹은 ‘미술에 재능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김미남(2013a)의 또 다른 연구는 개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사회적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지 밝히고, 또한 궁극적인 변화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려

는 목적으로 사회학자들이 사용하는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아동들의 미술 활동이 가진 사회문화적 의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김미남은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418명의 아동들에게 ‘미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묻고 이에 대한 아동들의 답을 분석하여, 한국 미술교육현장에는 네 가지 주요 사회적 담론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아동들이 내면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네 가지 담론들은 (1)미술은 그리기 혹은 만들기다, (2) 미술은 재미있거나 혹은 짜증나는 미술활동이다(의미 있는 미술활동의 부재), (3)미술과 학교미술은 다르다, 그리고 (4)미술은 잘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담론들은 아동들로 하여금, 그리거나 만들기를 못하는 사람은 미술에 재능이 없는 것으로 보게 만들고, 미술활동이 자기 이해나 소통 등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재미를 얻을 수 있는 혹은 그저 짜증나는 활동쯤으로 이해하게 만들고 있었다. 또한 미술은 생활 전반에 관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미술경험이 확장되지 못하여 아동들은 미술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활동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미술은 단지 ‘미술을 잘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을 미술시간의 주체로 보지 않고, 특정 재능 있는 집단을 위한 교과로 자신과는 상관없는 교과활동으로 본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현재 미술교육이 아동들에게 미술에 대한 흥미를 갖게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흥미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그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들이 미술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는 원인으로 첫째, 아동에게 미술을 ‘삶’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같은 결과물을 모든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둘째, 미술수업을 준비하는 교사의 개인적인 미술수업에 대한 가치관이 아동의 흥미나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미술수업 활동들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선택된 미술수업들은 아동들에게 교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미술에 대한 가치를 심어줄 뿐 아동의 미술에 대한 개별적인 흥미나 이해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학생들이 미술수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미술에 대한 사회적 담론들을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하는데 보통 높은 테크닉을 요구하는 사실적 회화에 대한 기대 담론들이 내면화되어 미술에 대한 포기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다.

2. 아동 미술표현의 사회화: 미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내면화 과정

본 연구는 한국 초등학교 아동들이 ‘미술’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는 ‘학교미술’에 대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 지 아동의 그림을 통해 탐구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저자의 선행연구들인 ‘미술활동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가치의 내면화: 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그림 그리기 경험의 분석과 탐구(2007)’과 ‘아동의 미술 정의에 내재된 담론분석(2013)’과 연장선에 있다. 이전의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탐구하려고 했던 바는 아동의 미술활동이 단순히 아동 개인의 창작활동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활동으로 보고(Pearson, 2001), 그 사회활동으로서 미술활동이 한국사회의 미술에 대한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가였다. 두 선행연구와 본 연구는 공통 관심사를 다루고 있지만, 참여관찰, 인터뷰, 그리고 아동의 그림분석이라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아동의 미술표현에 대한 왜곡된 이해의 변화를 위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들이 ‘미술’에 대해 내재화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 지 구체적 파악을 시도한다. 이 탐구들은 비고츠키(Vygotsky, 1978)의 사회문화적 발달이론과 사회 구조기능이론(societal functionalism)을 연구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있다.

우선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발달이론은 아동발달을 기존의 내적 유기체의 생물학적 발달로 이해하던 것을 사회문화적 영향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현대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다. 비고츠키의 사회적 발달이론은 이후 계속 로고프와 콘쿠 등 비고츠키의 영향을 받은 일련의 학자들에 의해 정교화되어 ‘발달’을 아동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특정한 사회문화적 의미체계(the existing system of meanings)을 내재화하는 것, 즉 사회화 과정으로 이해하게 하였다(Concu, 1999; Gaskins, 1999; Leont’ev, 1978; Rogoff, 2003).

비고츠키학과 학자들이 아동의 발달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활동이 무엇인가이다. 이런 반복적으로 아동들에게 허용되는 활동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에서 아동들에게 요구하는 특정 가치관이 무엇인 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아동을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이 여러 사회적 활동들 중 왜 특정 활동을 더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왜 그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가? 아동들이 자주 경험하거나 참여하는 사회적 활동들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의미 있다고 여기고 아동들이 참여하길 원하는 활동들은 아동이 속한 사회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나 기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들 학자들은 설명한다. 즉,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들을 내포한 활동이기 때문에 성인들은 그들의 아동들이 이런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장려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아동들은 반복적으로 특정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속한 사회와 문화가 아동에게 전수하고 싶은 가치나 의미체계들을 학습하고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구조기능주의 이론가 파슨스도 사회체계를 논의하면서 그 체계가 지니는 규범과 가치가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관심을 둔다(Ritzer, 2006, 재인용). 그는 사회구성원이 성

공적으로 사회화되었다는 것은 그 사회가 지니는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규범과 가치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의 일부로 기능하게 됨을 의미한다. 파슨스를 포함한 많은 구조기능주의자들은 한 사회체계가 지니는 ‘기능’ 강조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응이나 조절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다(Ritzer, 2006). 반면, 머튼(Merton)은 파슨스와 다르게 표준화된 반복적 유형으로 이루어진 사회현상들을 ‘역기능’의 개념으로 분석한다(Ritzer, 2006, 재인용). 머튼의 경우 특정 사회구조를 꼭 유지할 필요는 없다며 어떤 사회구조는 포기하거나 변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체계를 개선시킬 수 있을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 본 사회문화적 발달이론과 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 이론을 본 연구와 연결시켜본다면, 학교미술활동들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가치들을 반영하는 미술활동들로 이루어졌을 것이며, 아동들은 이렇게 구성된 미술활동들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반복적 경험은 아동들로 하여금 그 미술활동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기대를 내면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미술활동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형성하게 했을 것이다. 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미술활동에 대해 아동들이 떠올리는 ‘특정 이미지’를 저자는 ‘학교미술활동에 대한 시각적 기억’이라고 보았다. 사회문화적 발달이론과 구조기능주의 이론은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각적 기억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 지, 이 시각적 기억을 분석하는 것이 학교미술 활동 경험을 통해 아동들이 무엇을 학습하게 되는 지 파악하는 데 이론적 토대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머튼의 이론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미술활동들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가치의 사회화가 역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저자가 이 연구를 통해서 주장하려는 바와 연결되는 점이 많다고 하겠다.

3. 아동화 분석

“사실, 시각이미지에 대한 많은 이해의 어려움이 존재한다”(p. 1)라고 시각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는 질리언 로즈(Rose, 2006)는 이야기한다. 로즈는 시대적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의 필요성은 점점 더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직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로즈는 저서 『시각적 방법론(Visual Methodologies)』에서 최근 시각이미지 분석과 해석을 위한 다양한 접근들을 소개하는데 이들 모두는 ‘비판적인 시각적 방법론(critical visual methodology)’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많은 공통성을 지닌다. 즉

최근 이미지 분석의 경향은 비판적 읽기로 과거의 통계적인 양적 분석방법보다는 좀 더 질적인 분석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들의 미술작품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교육분야의 경우 이런 연구경향과는 다르게 여전히 양적분석들이 주로 시도 되고 있다(Kim & Kim, 2011). 양적분석을 시도하는 경우 보통은 다수 아동의 그림을 수집하여, 연구자가 수집 전부터 분석할 측면들을 미리 범주화하고 그 각각의 그림들에 그 범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 ‘확인’하여 일반화된 경향을 보고한다. 하지만 이런 양적분석의 경우, 사전에 정한 분석 범주에 속하지 않는 그림의 정보들을 무시되거나 버려지고 만다(Kim, 2009). 아동화의 분석이 연구자가 정한 틀 속에서 듣고자하는 메시지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닌, 아동화가 충분히 자기 메시지를 소통할 수 있도록 열린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아동화에 대한 교육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예술가들의 관심은 아동의 그림에 나타난 표현 특징이 인간의 발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로웬펠드(Lowenfeld)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이 다수 아동의 그림을 수집하여, 연령에 따라 어떤 표현특징들을 보이는 지 양적으로 분석하여 발달의 일반적인 경향들을 찾아내었다. 하지만, 아동미술발달을 연구하는 관점이 최근에는 과거 발달론을 대신하여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화분석 방법은 여전히 대안적 분석방법을 찾지 못하고 전통적인 분석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Kim & Kim, 2011).

저자의 경우, 이전 연구에서 아동의 그림이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양적분석이 아닌 질적인 분석 방법의 개발을 시도한 바 있다 (Kim, 2009). 2009년 아동의 그림 표현전략이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 어떻게 사회화될 수 있는 지 탐구하였던 연구에서 저자는 수지라는 한 아동의 두 장의 그림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그림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아동의 그림을 양적자료가 아닌 질적자료로 보고, 그림자료를 다른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인터뷰나 관찰 자료처럼 반복해서 ‘읽기’를 시도한 후, 그림에 사용된 모든 시각적 정보들(그림에 표현된 최종 이미지 뿐만 아니라 지워진 흔적, 그려진 순서 등등)을 세밀하게 기술하고, 기술된 내용을 검토하여 주제(theme)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그림 자료를 해석한 바 있다.

이 그림 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는 기술단계로 그림에 존재하는 어떤 정보라도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가치들이 평가되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림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철저히 최대한 집중하는 것이다. 즉, 자료

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기술단계에서 이루어진 시각 텍스트의 문자화 이후 자료를 코딩하여 기술된 내용에서 중요 주제와 패턴을 찾아내는 단계였다. 두 번째 단계까지는 그림이 그려진 맥락이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갖는 특수한 경험에 대한 정보는 철저하게 사용되지 않았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비로소 아동화가 작성된 맥락이나 그림 그리는 사람에 대한 자료들이 사용되어 두 번째 단계까지의 분석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의 해결을 추구하는 단계였다.

이런 세 단계의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자는 아동이 사회적으로 표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정적 감정경험을 주제로 그림을 그릴 때,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표현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회화되는 것처럼, 아동의 표현 전략도 사회화되고 있음을 그림분석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양적분석방법이 통상적으로 이용되어 온 아동화 연구에서, 특히 사회문화적 영향 등과 관련된 정보를 그림으로부터 듣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때, 양적분석방법의 한계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양적분석과 함께 다양한 질적 접근법을 고민하고 아동화 분석에 시도하는 것은 그림이 전달하려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소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학교미술활동에 대한 시각적 기억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미술수업에서 아동들이 어떤 경험을 갖는 지, 그 경험들을 통해 아동들이 미술과 미술수업에 대해 어떤 것을 학습하게 될 수 있는 지 찾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 아동의 그림을 수집하여 통계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는 지 찾아 일반적인 특성들만을 나열하기 보다, 개별 그림들이 ‘현재 미술교육’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지 소소한 정보도 놓치지 않기 위해 참여 인원을 10명으로 한정하였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10명이 자신들이 기억하는 미술수업 장면을 그려주고 또한, 자신의 그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2. 자료의 종류와 수집 과정

사회문화적 발달론과 구조기능주의 이론에 따르면 “한국아동들은 미술과 관련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특정 문화적 가치들이 내재된 미술활동에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참여하였을 것이며 이런 경험을 통해 미술에 대한 특정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김미남, 2013a, p. 32)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학교미술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그림을 그리게 하면 학교미술교육에 대해 아동이 이해하고 내재화하고 있는 가치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미술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 아동들이 특별히 기억하는 장면은 무엇인 지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통해 현재 미술교육이 아동들에게 ‘미술과 미술교육에 대해’ 어떤 이해를 하게 하는 지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학교미술활동에 대한 기억 분석을 통해 밝혀진 아동의 미술과 미술교육에 대한 이해가 아동에게 이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아동들에게 동적학교생활화 검사(KSD: Kinetic School Drawing)를 재구성한 그림그리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동적학교생활화 검사는 Knoff와 Prout가 1988년 개발한 그림검사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그들과 관련있는 인물들, 즉 자기 자신과 친구들, 그리고 교사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이다(김선현, 2012). 이 검사는 원래 학교 환경 내에서의 상호관계와 학업 성취성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경험들을 말보다 그림으로 표현할 때 비교적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김선현, 2009). 김선현(2009)은 학교생활화는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함 보다는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아동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될지 이해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동적 학교생활화 검사에서는 그림을 위한 지시문으로 “자신과 선생님, 한 명 또는 한 명 이상의 친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막대기나 만화 같은 모습이 아닌 완전한 사람을 그리세요. 모두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을 꼭 그리시기 바랍니다”(김선현, 2012, p. 89)라고 말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지시문 대신 아동들에게 눈을 감게 하고 “자신과 선생님, 그리고 한 명 또는 한 명 이상의 친구들이 미술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장면이 눈 앞에 떠오르나요. 자신과 친구들은 어떤 미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미술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떠오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주세요”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모양을 그릴 필요는 없음을 이야기 하였는데, 이는 아

동들이 그림의 사실적 표현에 부담감을 갖게 되면 표현하고 싶은 상황을 그리는 데 자신감을 잃을 수도 그리고 많은 부분 생략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림검사는 아동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이루어졌으며, 아동들에게는 A4 종이, 8절 도화지, 연필과 색연필, 크레파스 중 선택하고 싶은 재료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아동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하는 이야기, 행동 등을 관찰지로 기록하고, 그림이 완성된 후에는 아동들에게 어떤 상황인 지 설명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녹음 후 전사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과 과정

본 연구는 아동화가 전달하는 아동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메시지이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지 밝히고, 그를 통해 어떤 변화를 우리 사회에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 묻는다. 아동화 분석을 포함하는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이미지와 의미의 ‘관계’를 파악하는 구조주의적 의미해석에 치중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은 아동이 그린 그림 속의 선과 형태 등이 아동의 생각과 감정 상태를 그대로 전달할 것(김선현, 2009; Gardner, 1980)이라는 낭만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동적 학교생활화 검사의 경우도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상호작용들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 것인데, 긍정적 혹은 부정적 생활을 하고 있는가와 같은 단편적인 해석만을 가능하게 하는 양적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적 학교생활검사로부터 아동의 학교미술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기 위한 아이디어를 빌려오기는 했지만, 분석에 있어서는 검사지를 개발한 연구자들이 제안한 양적 분석보다는 김미남(Kim, 2009)이 질적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질적자료 분석 방법을 응용해서 질적 그림분석으로 개발한 분석 방식을 따랐다.

그림 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는 기술단계로 그림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 즉, 자료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각 텍스트들을 문자 텍스트로 전사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술단계에서 이루어진 문자화된 시각 텍스트 자료를 코딩하여 중요한 주제와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였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아동화가 작성된 맥락이나 아동의 설명 등을 참고하여 보다 관련된 주제들을 연결하고 몇 개의 주요 개념들을 도출해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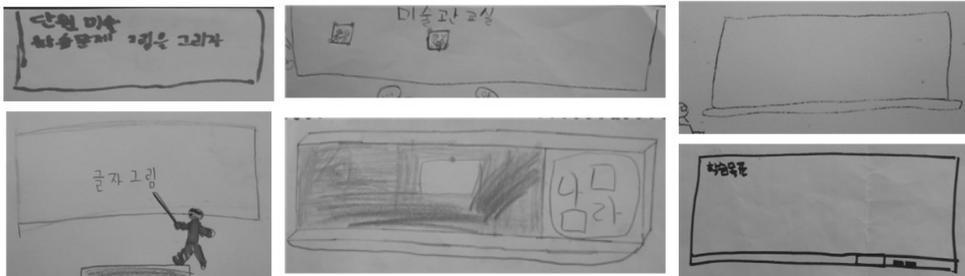
IV. 아동의 미술수업에 대한 내면화된 기억 이미지

연구에 참여한 열 명의 아동들의 미술시간에 대해 떠올린 기억을 그린 그림 그리고 아동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술과 미술수업에 대해 내면화된 이해는 크게 5 가지의 주제로 정리될 수 있었다. 그 주제들은 다음과 같았다.

- (1) 미술교수활동이 없는 미술수업
- (2) 미술활동은 개별활동
- (3) 미술은 그림그리기
- (4) 미술은 교실에서 하는 활동
- (5) 미술시간은 노는 시간, 조는 시간

1. 미술교수활동이 없는 미술수업

“선생님은 뭘 하라고 칠판에 적고 설명하고 나가요.”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은 미술 시간에 교사의 부재에 대해 거듭 이야기하였다. 한편 교실에 학생들과 함께 있는 교사의 경우도 미술시간에 그들의 역할은 칠판에 그 시간에 할 활동 주제를 적어두거나, 예시 작품을 붙여두는 것으로 그들의 임무는 전자의 교사와 별반 다름없었다. 활동주제의 제시로 교사들이 준비한 교수 활동은 거의 종료되는 것이다. 아동들은 미술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학교 교실을 모두 선택하였고, 학교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수업 상황을 그린 그림 속에는 열 명의 아이들이 모두 칠판을 빠짐없이 그리고 있었다. 칠판에는 주제만 간단히 써 있거나(그림 1), 예시작품이 하나 혹은 두 개(그림 2), 그리고 별다른 중요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채(그림 3)로 묘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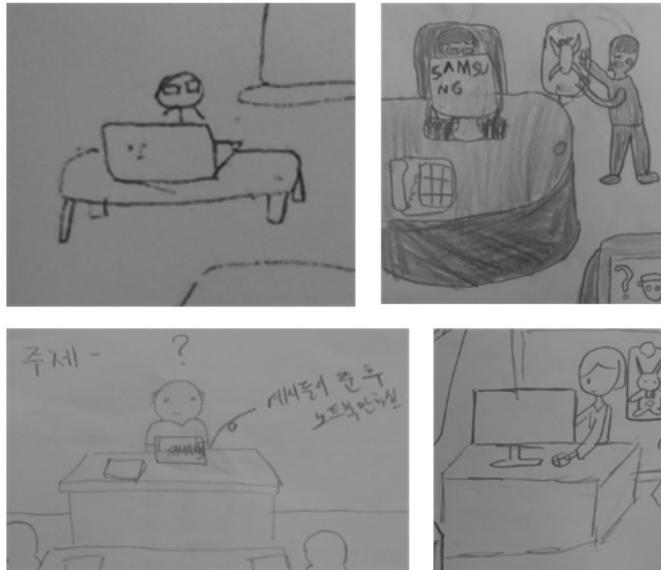


<그림 1> 칠판에 주제
제시 (상,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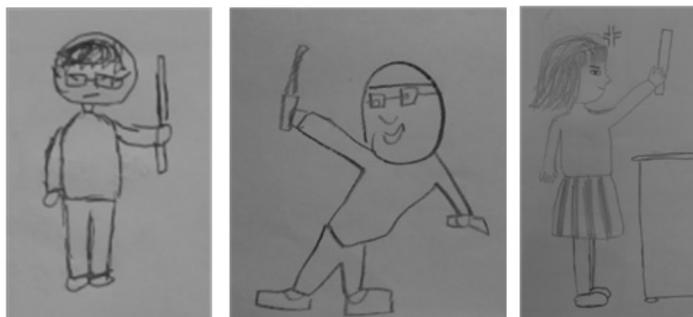
<그림 2> 칠판에 예시작품 제시
(상, 하)

<그림 3> 칠판에 정보
제시 안 됨 (상, 하)

아동들에게 미술 수업은 주제에 대한 충분한 탐구 등을 통해 표현 욕구를 자극하는 동기화 작업이 중요하다. 주제가 결정된 후, 주제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여 어떤 표현방법이 효과적일지 고민하는 것도 교육과정에서 명시하는 중요한 미술과 교수-학습 방법(교육과학기술부, 2011)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그림에서 교사는 아동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아동들의 그림 속에서 교사는 미술교수활동을 하고 있기보다 자기 책상에서 컴퓨터를 하거나(그림 4),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훈육하는 모습(그림 5)으로만 그려지고 있었다.



<그림 4> 미술시간에 컴퓨터만 하고 있는 교사 이미지들



<그림 5> 몽둥이 들고 훈육하는 교사 이미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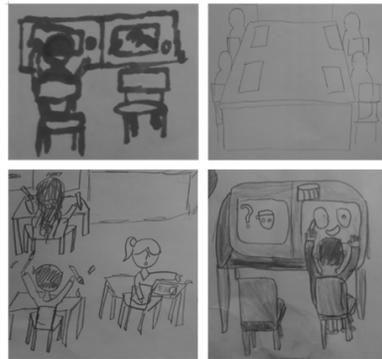
이성도(2010)는 오늘날 미술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주변교과로 인식되고, 학습자에게 소외되는 교과로 자리 매김 되고 있는 이유를 교육정책, 인적자원문제, 수업여건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제시한 바 있다. 교사의 교수능력을 비롯한 교과의 전문성 문제라는 인적자원의 문제도 현 미술교육이 외면 받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제시되었었는데, 아동들이 기억하는 미술수업 장면 속의 교사의 이미지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주제 제시 후 지도를 하지 않는 교사, 아이들은 자율적으로 미술활동을 하고 자신은 컴퓨터로 개인적인 사무를 보는 교사, 몽둥이를 들고 조용히 시키려고만 하는 교사들의 이미지는 미술수업에 과연 교수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2. 미술활동은 개별활동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미술수업이 이루어지는 장면 속에 아동들이 개별미술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그렸다. 책상에 한 명씩 앉아서 자기 과제를 하거나(그림 6) 둘이 앉아 있어도 개별 작업을 하고 있다(그림 7). 아동들에게 보다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미술활동이 전적으로 개인의 창작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김미남(2013a)의 연구에서 아동들은 미술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이 향유하는 것으로 여기는 아동들이 많음을 보고한 바 있는데, 협동 작업을 통해 서로의 장점들을 살리거나 힘을 합칠 때 개별적인 단점들을 극복하고 좋은 작품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6> 수채화 활동의 문제



<그림 7> 개별활동 위주의 미술시간

3. 미술은 그림그리기

그림 6의 예시 이미지들은 또한 아동들이 미술수업에 하는 활동으로 그림그리기를 떠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 중에서 만들기 활동을 그린 아동은 2명 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는 활동을 그리고 있었다. ‘미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동들의 답변을 분석했던 김미남(2013a)의 연구에서도 많은 아동들이 미술을 주로 그리기로 이해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었다. 이런 결과는 우리 미술교육이 현대 미술계의 다양한 영역 확장과 표현시도들에 반응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회화중심의 미술수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동의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미술이 다양한 표현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리기와 색칠하기 위주의 미술활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미술이 곧 그림’이라는 잘못된 이해를 심어줄 수 있다. 이런 미술에 대한 좁은 이해는 자신이 그림그리기 미숙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신은 미술에 재능이 없다고 느끼고, 미술이라는 교과에 대해 쉽게 자신감을 잃고 포기하게 만들 것이다(김미남, 2007; 2013a). 특히나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경우 반복해서 수채물감을 사용하는 미술활동을 하게 되는데, 번지지 않게 색칠하기, 원하는 색을 만들어내기 등은 꽤나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적절한 지도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전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미술교수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이 스스로 수채화 도구의 사용법을 익히고 적절한 표현법까지 마스터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림그리기 활동을 진행할 때, 많은 아동들은 자신들이 미술을 못한다고 스스로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은 이런 수채화를 사용하는 미술활동이 다수의 아동들이 함께 지내는 교실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얼마나 어려움 많은 활동인 지 보여준다.

4. 미술은 교실에서 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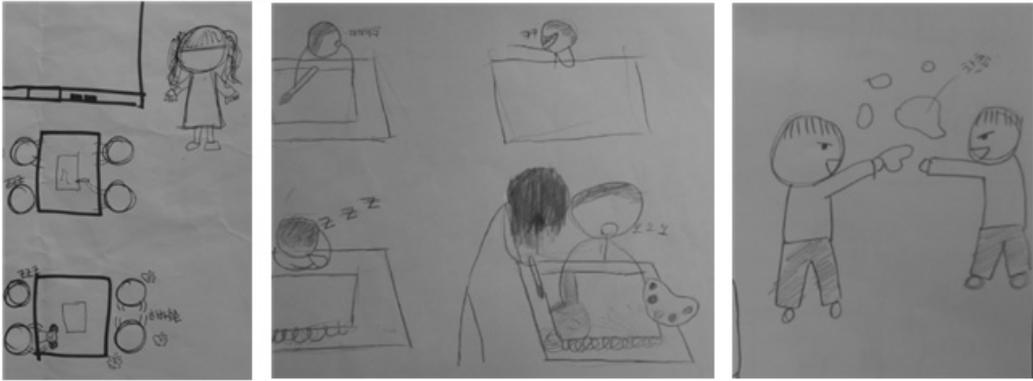
제퍼스(Jeffers, 1999)는 아동들에게 ‘미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상당수의 아동들이 미술을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라고 대답하는 연구분석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아동들이 미술을 일상생활에서 어디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한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미남(2013a)의 연구는 한국 아동들의 경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을 다른 미술활동과 구분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학교에서 하는 미술은 자기표현을

위한 목적보다는 공부로 본다고 하였다. 이렇게 학교미술을 ‘공부’를 위한 미술로 보는 경우, 자발적인 참여 대신 수동적인 참여를 하게 되고, ‘표현하고 싶은 것’보다는 ‘표현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들은 야외 활동,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미술활동 대신,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미술활동을 모두 그리고 있었는데, 이는 아동들에게 체퍼스나 김미남의 연구결과가 보여주었던 대로 미술을 일상에서 분리시켜 생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미술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줄 필요성을 갖는다 하겠다.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미술수업을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한 학기에 1회 이상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는 아동들의 미술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현재의 좁은 시각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미술시간은 조는 시간, 노는 시간

이성도(2011)는 오늘날 미술교육이 학생들의 관심에서 먼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아동의 흥미가 반영된 미술수업을 계획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 제기되고 명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흥미와 관심과 연계된 미술수업이 여전히 현실화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림 8을 보면 좌측 첫 번째 그림의 좌측에 두 명의 아이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서 앞 줄 두 명의 아이가 얼굴 옆에 ZZZ표시가 그려진 채로 졸고 있다. 특히 두 번째 그림 오른쪽 앞 학생의 경우, 교사의 지도를 받고 있음에도 졸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첫번째 그림 가운데 두 명의 학생은 수업 중임에도 노는 혹은 싸우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며, 가운데 그림의 뒷줄 두 명은 서로 마주보고 수다를 떨고 있다. 세 번째 그림의 아이들은 종이를 던지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그 외에도 다수 아동의 그림에서 미술시간에 즐거나, 장난치거나, 떠들거나, 싸우는 모습의 학생들을 그리고 있었다. 이는 미술 시간이 노는 시간, 혹은 잠자는 시간으로 여겨지며,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술시간이 단순히 장난치고, 잠 잘 수 있는 시간으로 이해된다는 것은 아동들로 하여금 미술활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 뿐만 아니라 교과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보다 잠깐 시간을 때우는 시간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또한 미술시간에 학생지도, 적절한 교수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그림 8> 미술시간은 노는 시간, 조는 시간 (좌, 중, 우)

V. 결론

본 연구는 미술교육의 발전적 변화를 위한 오랜 기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미술교과에 흥미를 잃고 혹은 포기해버리고 마는 현실적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마주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었던 선행연구들처럼 본 연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회적 가치와 기대들이 아동들에게 학습되고 내재화되고 있음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 보고, 그 무형의 내재화된 한국사회의 아동미술에 대한 가치나 기대 등이 무엇인지 아동이 기억하는 미술수업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동의 미술수업에 대한 학교동적생활화의 분석 결과는 첫째, 참여 아동들의 경우 미술수업에서 미술교사의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단순히 ‘주제를 제시하고 자신의 개별 업무를 보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때, 미술수업은 아동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 성인들의 영향이 ‘0’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믿어졌고, 따라서 교사의 역할을 방관자 수준에 머물렀던 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 미술교육은 아동중심의 미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여전히 동의하고 있지만, 교사의 역할은 더욱 적극적이기를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아동의 미술수업에 대한 기억들은 교사가 주제 제시 후 교실을 비우거나, 컴퓨터로 자기 업무를 보거나 학생들의 작업활동을 관찰하기는 하지만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장거리의 관찰이 이루어질 뿐이어서 미술 교수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미술교사의 역할과 태도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분석 결과는 보여준다.

두 번째 분석결과는 아동들이 미술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대부분 개별활동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협동 작업을 통해, 아동들이 미술을 한다는 것이 작가 개인이 모든 것을 혼자해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표현능력의 부족을 아이디어 발상이나 표현 아이디어 구상 등을 통해 보충할 할 수 있는 기회, 다른 아동으로부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세 번째 분석결과는 비슷한 선행 연구에서도 여러 번 지적되었던 아동이 미술을 그림그리기로 이해하는 경향을 여전히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한 아동의 수가 적어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선행 연구들에서 다수의 아동들이 인터뷰를 통해 보여주었던 미술에 대한 이해가 시각적 증거로 또 한번 나타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미술이 그림이라는 이해가 아동들에게 내재화된다면 ‘그림을 못 그리면 미술을 못하는 것’으로 다른 분야의 잠재능력은 개발되지 못한 채 미술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미술교사들은 다양한 미술표현분야들을 소개하고, 그림이 아니라면 어떤 표현방법이 아동들에게 더 적합한 혹은 흥미로운 방법인 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네 번째 결과는 미술은 학교 교실에서 하는 활동으로 여기고 있어, 미술이 일상의 삶과 연관될 수 있다는 폭넓은 이해대신, ‘미술은 학과공부’라는 생각을 아동들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공간과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미술활동을 계획함으로써 아동들의 이런 좁은 시각을 넓여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는 학교 미술수업이 노는 시간 혹은 조는 시간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미술수업에 대한 아동들의 가벼운 태도는 미술활동이 아동들에게 단순히 ‘재미’나 ‘시간때우기’ 혹은 ‘나와 관련없는 활동’이 아닌 ‘나에게 정말 의미있는 미술활동’이라고 느낄 때 변화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 시켜준다. 학생들의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미술교사가 좀 더 충실하게 미술수업을 학생들의 고민과 흥미와 관련되어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분석결과들은 적극적 미술교수의 부재로 인해 아동들이 미술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놀거나 자는 시간으로 미술시간을 가볍게 볼 수 있게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많은 아동들이 왜 미술을 자신들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지 않고, 일찍부터 포기를 하게 되는 지 하나의 중요한 원인을 설명해준다. 사회적으로 미술을 조직화된 교수가 필요한 과목으로 보지 않고, 적당히 아이들에게 시간을 때우는 시간쯤으로 여기는 인식들이 이런 미술활동의 모습

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들이 미술을 오로지 그림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 특히 수채화활동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은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채화를 사용한 회화활동이 아동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그림’을 미술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학습자에게 전달되게 되면 ‘그림’을 못 그리는 아이들은 일찍부터 자신을 ‘미술에 재능 없다’고 스스로 낙인을 찍고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듯 아동의 학교 미술활동의 시각적 기억에 대한 분석은 아동들이 미술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미술을 일찍부터 포기하게 되는 이유들을 미술교육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이제 미술교육자와 미술교사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미술수업에 대한 아동들의 그림을 분석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은 우연히 언어학에서 ‘의미론’과 ‘화용론’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나에게 “비온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론적으로만 살펴보면 지금 비가 온다는 현상을 단순히 알려주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말이 발화된 맥락과 연결시켜 ‘비가오니 널어놓은 빨래가 젖지 않게 얼른 걷으라’고 이해하고 ‘빨래를 걷는’ 행동이 촉발되는 것에 더 중요성을 둔다면 화용론이 된다는 것이다. 본 저자는 아동의 그림을 분석하면서, 아동들의 그림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혹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기억하고 있는 미술수업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가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아동의 그림이 나를 포함한 미술교육 관계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도록 기능할 것인가 궁금했다. 마치 ‘비가 온다’는 말을 듣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나에게 어머니께서 ‘비가 오니 빨래가 젖지 않게 걷으렴’이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아동의 그림분석 결과를 통해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고 다시 말하고 싶었다. 그래서 실제 행동이 촉발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미술교육자들의 실제 행동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 미술교육의 변화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더 많은 화용론자들이 등장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11). **미술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별책13]).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김미남(2007). 미술활동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가치의 내면화: 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그림

www.kci.go.kr

- 그리기 경험의 분석과 탐구. **미술과 교육**, 8(2), 77-100.
- 김미남(2013a). 아동의 미술 정의에 내재된 담론분석. **조형교육**, 46, 29-49.
- 김미남(2013b). **미술교육의 극한의 재고와 그 확장 가능성: 들뢰즈의 ‘기관없는 신체’ 개념을 중심으로**. 2013 국제미술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pp. 89-105).
- 김선현(2009). **똑똑한 내 아이를 위한 미술치료 쉽게 하기**. 서울: 진선출판사.
- 김선현(2012). **임상미술치료 길라잡이**. 경기: 이담Books.
- 이부영(1998). 전 원래 그림 못 그려요. <http://www.eboo0.com/artclass/column/mother/playwithart1.php?menu=subA2>에서 검색.
- 이부영(2008). 경험으로 본 초등미술교육. **한국미술교육학회 제30차 학술대회 자료집** (pp. 1-17).
- 이성도(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 개발. **미술교육논총**, 24(2), 93-130.
- 진은정(2013). ‘무법(無法)의 법’을 통한 미술표현 지도에 대한 반성적 접근. **미술교육**, 27, 247-255.
- Concu, A.(1999). Children’s and researchers’ engagement in the world. In Concu, A.(Ed.). *Children’s engagement in the world: Sociocultural perspective*(pp. 3-22).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leuze, G. & Guattari, F.(2001). **천 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2** (김재인 역). 서울: 새물결. (원저 1980 출판)
- Gardner, H.(1980). *Artful scribbles: The significance of children’s drawings*. New York, NY: Basic Books.
- Gaskins, S.(1999). Children’s daily lives in a Mayan village: A case study of culturally constructed roles and activities. In Concu, A.(Ed.). *Children’s engagement in the world: Sociocultural perspective*(pp. 25-61).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ffers, C. S.(1999). What happens when we ask, "what is art?" *Art Education*, 52(1), 40-44.
- Kim, M.(2009). *Socialization of children’s visual expression: The socio-cultural meaning and function of Korean children’s depictions of negative emotions in their drawing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PA.
- Kim, M. & Kim, H.(2011). A review 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studies on child art: Focused on analyzing children’s drawings. **조형교육**, 39, 71-98.
- Leon’ev, A. N.(1978). *Activity, consciousness, and personality*. NJ: Prentice_Hall, Inc.

- Pearson, P.(2001). Towards a theory of childrens drawing as social practice. *Studies in Art Education*, 42(4), 348-365.
- Ritzer, G.(2003). **현대 사회학 이론과 그 고전적 뿌리** (한국이론사회학회 공역). 서울: 박영사. (원저 2006 출판).
- Rogoff, B.(2003). *The cultural nature of human development*.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Rose, G.(2006). *Visual methodologi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Vygotsky, L. S.(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In Cole, M., John-Steiner, V., Scribner, S. & Souberman, E. (E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논문접수 2013 10월 15일	논문심사 2013년 10월 30일	게재승인 2013년 11월10일
-------------------	--------------------	-------------------

ABSTRACT

Analysis of Children's Visual Memories on Art Class

Minam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socio-cultural value and belief about visual arts are learned and internalized by Korean children through analyzing children's visual memories on their art class. Author's previous studies have explored the same research problem in different ways since, although many efforts to develop school art class much better, many students still have difficulties to participate their art making practices in school actively. Moreover, it has been also observed many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gives up their interest in art in their early years. Therefore, in this study, it is attempted to explore what makes children lose their interest in and passion on art.

For this study, 10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asked to draw their memories on art class and after completing their drawing, they were also asked to explain their drawing. Collected drawings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analyzing methods developed by Kim(2009) instead of quantitative analyzing method. From this analysis, the five themes were found related to problems of Korean elementary art class: (1) Distorted art teachers' role in art class, (2) Children's limited understanding art as an individual work, (3) Children's understanding art as drawing or painting, (4) School arts are conducted only in classroom, and (5) Chatting and sleeping can be available in art classroom. These findings show us what changes art educators have to make for their future art lesson.